

주 의

제 목 토양오염도 검사 업무 부적정
소관부서 〰〰〰〰〰〰처, 〰〰〰〰〰〰소
내 용

〰〰〰〰〰〰소(이하 “〰〰〰”라 한다)는 2010. 〇〇. 〇〇. 「토양환경보전법」 제 2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는 「토양오염도 검사 요령」을 제정하여 토양오염도 검사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13. 〇〇. 〇〇. 「직제규정시행세칙」이 개정되어 해당 업무가 〰〰〰 〰〰〰〰〰〰처로 이관되었으나, 계약, 수수료 수납, 결과서 발급 등 행정업무는 〰〰〰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 의하면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고, 누출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서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석유관리원 「토양오염도 검사 요령」 제11조는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를 신청인과 관할 지자체장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 「토양오염도 검사 요령」 제16조에 의하면 토양오염도 검사신청인은 검사 신청 시 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에 의한 검사일 경우에는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분석수수료의 할인 및 납부기간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년 〇월부터 〇월까지 토양오염도 검사는 계약에 의해 ●건, 일반 신청에 의해 ◎건, 총 ㉠건이 접수되었다.

그런데, 계약에 의한 토양오염도 검사 중 대금지급일 이내에 검사수수료가 입금된 건은 1건 뿐이며 나머지는 기일 이후에 입금되거나 계약서에 대금지급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일반 신청 건은 모두 신청일 이후에 검사수수료가 입금되었다.

한편, 「감사직무규정」 [별표 1] “일상감사의 범위 및 절차”에 따르면, 일상감사의 범위 중 예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제계약의 체결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에서는 ‘15년도 ○월부터 ○월까지 계약에 의해 수행한 토양오염도 검사 ●건 중 3건은 5백만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득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 ■■■■■처는 검사수수료 납부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검사 요령」 제16조에 따라 신청 시 수수료를 받는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토양환경보전법」을 반영하여 「토양오염도 검사요령」의 검사결과 통보 대상자인 소방서장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② ■■■■■소는 「감사직무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 계약건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상감사를 받는 등 해당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